

정부는 신개념 교통수단인 GTX에 적합한 요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.

<보도 내용 (머니투데이, 8.24) >

- ◆ 출퇴근 지옥 대신 왕복 1만원? GTX-A노선, 요금체계 연내 확정
 - GTX 이용시 기존 대중교통보다 시간이 크게 줄어들지만, 비용 부담은 2배가량 증가

- 국토교통부(장관 원희룡)는 GTX의 높은 서비스 수준, 이용자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 요금을 책정해 나갈 계획입니다.
 - GTX는 일반 지하철 대비 속도가 약 3배 이상 빠르고, 서울 도심으로의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등 신개념 교통수단으로 이에 적절한 요금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며,
 - 특히, 국민의 이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수도권 버스·지하철·GTX 간 환승 할인 및 GTX 노선 간 환승 할인 방안 등을 해당 지자체와 적극 모색하고 있습니다.
- 국토교통부는 내년 상반기 GTX-A 수서~동탄 개통과 함께 국민들께서 GTX를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요금 결정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.

담당 부서	철도국 수도권광역급행철도과	책임자	과 장	안재혁 (044-201-3964)
		담당자	팀 장	육인수 (044-201-3963)
			사무관	심보경 (044-201-3967)